



나지완

‘가을 사나이’ 나지완의 계절이 왔다

LG전 연타석 홈런포... 팀 7연패 끊어
“KIA 가을야구 이끌겠다” 당찬 각오

‘가을 사나이’ 나지완의 계절이 돌아왔다. KIA 타이거즈 나지완은 22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경기에서 4회와 6회 연타석 홈런포를 쏘아올리며 팀의 시즌 첫 연타석 홈런의 주인공이 됐다.
영양가 만점의 홈런 두 방이었다. 0-2로 뒤지던 4회 2사에서 쏘아올린 한방은 추격의 불씨를 당겼다. 나지완의 홈런과 함께 비가 쏟아지면서 경기가 잠시 중단됐지만 이후 재개된 경기에서 조영훈이 쓰리런을 터트리며 경기의 흐름을 바꿨다.
나지완은 4-4로 승부가 원점으로 돌아간

6회에도 솔로포를 날리며 역전극의 주역이 됐다. 경기가 5-4로 마무리되면서 6회를 끝으로 마운드를 내려갔던 각별한 후배 윤석민에게 승리를 안겨준 값진 홈런이 됐다.
7연패의 팀을 구해내며 난세의 영웅이 된 나지완은 “자존심이 상했었다”며 그 동안의 마음고생에 대해 얘기했다.
KIA는 올 시즌 이범호-최희섭-김상현의 ‘부상 로테이션’이 계속되면서 공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난 15일에는 최희섭이 장염으로 다시 엔트리에서 말소되면서 다시 3명의 주축 선수들이 모두 1군에서 벗어났다.

팀의 연패까지 맞물리면서 KIA의 화두는 ‘LCK’포가 됐다.
나지완은 “물론 세 선배가 팀의 주축 선수가 되는 것은 좋다. 또 팀타격이 너무 좋지 않아서 그렇겠지만 1군에서 선수들이 계속 뛰고 있는 가운데도 계속해서 LCK포 얘기만 나왔다. 자존심이 상했다. 비로소 내 역할을 할 것 같다”고 심경을 밝혔다.
나지완은 또 “그동안 투수들에게 너무 미안했다. 정말 이기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던 경기다. 타석에서 간절하게 플레이를 했고, 덕아웃에서도 간절하게 응원했다”고 웃었다.
후반기에 강한 나지완의 방망이가 꿈틀대면서 멀어져가던 KIA의 가을야구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나지완의 부활 조짐은 지난 18일 3년 만에 다시 마련된 SK 채병용과의 승부에서 엿볼 수 있었다. 나지완은 2009년 한국시리즈 7차전에서 채병용을 상대로 프로야구 역사에 길이 남을 끝내기 홈런을 때려내며 호랑이군단에 10번째 우승을 안겨줬었다.
이후 채병용의 군입대로 미뤄졌던 두 선수의 재대결에서 나지완은 3개의 안타를 때리며 관정승을 거뒀다. 비록 팀이 1-2로 패하기는 했지만 집중력 있는 승부로 KIA의 영웅패를 막은 홈런도 뽑아냈다.
나지완은 “(윤)석민에게 물어보니까 투수들 입장에서는 의식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 다시 펼친 승부에서 좋은 성적을 냈다”며 “팀의 4강이 어려워지기는 했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팀의 중심타자로서 형들의 부재가 느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홈런에도 욕심을 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전국 시·도대항 기계체조 대회

남녀 489명 참가

2012 런던올림픽 무대를 밟았던 한국 남자 기계체조 선수들이 대구시를 찾아 다시 기량을 펼친다.

대한체육회회는 24일부터 나흘간 대구광역시 경북대 제2체육관에서 제39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시도대항 기계체조대회 및

전국대학·일반체조선수권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에는 초·중·고·대학·일반부에 남자 50개팀 272명, 여자 40개팀 217명이 참가해 단체(개인)종합경기와 종목별 결승경기를 한다.

남자는 마루운동·안마·링·도마·평행봉·철봉의 6종목, 여자는 도마·이단평행봉·평균대·마루운동의 4종목을 치른다.

런던올림픽에 참가했던 김승일(수원시청)·김수면(포스코건설)·김지훈(서울시청)은 일반부에서, 김희훈(한체대)은 대학부에서 기량을 뽐낼 예정이다.

올림픽 체조(도마) 금메달리스트인 광주 의 아들 양학선(한체대)의 팬 사인회도 준비돼 있다.

이번 대회는 오는 10월 대구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의 리허설 경기로, 전국체전 체조 경기가 열리는 체육관에서 진행된다.
/연합뉴스



최향남 7월 MVP KIA 투수 최향남이 지난 22일 LG와의 경기에서 앞서 밝은안과 21방타를 시상하는 7월 월간 MVP를 받았다. 최향남은 7월 한 달 3이닝 1홈드 방어율 3.38을 기록하며 팀 승리를 지켰다. 최향남은 시상금 100만원 중 50만원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했다.
<KIA 타이거즈>

한·중·일 청소년 선수들
광주서 11개 종목 겨룬다

주니어 종합경기대회... 오늘부터 열전 6일 돌입

광주에서 아시아 3개국 청소년 선수들의 우정과 화합의 무대가 펼쳐진다.

제20회 한·중·일 주니어 종합경기대회가 24일 조선대 해오름관에서 개막식을 갖고 6일간의 일정에 돌입한다.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광주시, 광주시교육청, 광주시체육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만 18세 이하 고등학생 960명(한국 240, 중국 240, 일본 240, 광주 240)이 참가해 광주월드컵경기장, 영주양궁장, 전남대체육관 등 각 경기장에서 오는 29일까지 경쟁과 화합의 시간을 갖는다.

육상, 축구, 테니스, 농구, 럭비, 정구, 탁구, 핸드볼, 역도, 배드민턴, 배구 등 11개 종목에서 대결이 벌어지며, 문화 탐방의 등을 통한 친선의 시간도 준비됐다.
23일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한 일본, 중국 선수단은 호남대 기숙사에 대회 캠프를 차렸다. 한국 선수단은 24일 조선대 기숙사에 짐을 풀다.
한편 3개국 종합경기대회는 1968년 3개국 청소년들의 스포츠 문화 교류와 경기력 향상 및 우수 선수 발굴을 위해 창설됐으며 한국, 중국, 일본에서 매년 순차적으로 열리고 있다. 지난 2009년 대회는 전남에서 열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FC 승점 1점에 목 탄다

26일 경남과 K리그 정규리그 마지막 승부... 강등권과 1점차



K리그 정규리그 마지막 승부가 펼쳐진다. 광주 FC가 오는 26일 창원축구센터에서 경남FC를 상대로 2012 K리그 30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스플릿 시스템’을 앞두고 치러지는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다. 광주는 경남과의 3차레 승부에서 모두 패를 기록했다. 승리가 없는 광주는 정규리그 최종전에서 ‘고춧가루 부대’의 위력을 발휘하겠다는 각오다.
경남은 승점 37점으로 9위에 랭크됐다.

8위 대구와는 2점차, K리그 우승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8위 안에 들어 그룹 A에 편성되어야 한다. 경남에게 광주전 승리가 절실한 이유다.
그룹 B에서 강등권 탈출을 노려야 하는 광주는 경남과 후회 없는 한판 승부를 벌

이겠다는 각오다.
광주는 지난 시즌에도 6강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벌어진 부산, 울산, 전남과의 경기에서 무패행진을 달리며 고춧가루 부대로 이름을 날렸다. 특히 전남은 광주에 일격을 당하며 6강 진출이 무산되기도 했다.
광주는 22일 열린 29라운드 포항과의 경기에서 0-1로 패하며 승점을 쌓지 못해 승점 1점이 간절하다.
포항과의 경기에서 교체 출전하며 체력을 비축한 이승기, 주앙파울로, 복이가 경남전 핵심카드다. 이승기의 재치, 복이의 높이 그리고 주앙파울로의 빠른 발과 개인기가 정규리그 마지막 승리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신아람 ‘국민 메달’에 활짝 웃었다

이용대·박태환과 함께 ‘최고의 선수상’ 받아

런던올림픽 펜싱에서 ‘뭉치런 1초’의 희생자였던 신아람(26·계룡시청)이 오랜만에 활짝 웃었다.

신아람은 23일 서울 세종로 KT 광화문지사 올레스퀘어에서 열린 ‘2012 런던올림픽 최고의 선수어워드’에서 “최고의 선수상을 받는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라며 웃음을 지었다. 이어 “올림픽 이후 주변 환경이 많이 변했지만 스스로 변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고 말했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만큼 신아람의 일상은 올림픽 이후 많이 달라졌다.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도 많아진 데다 방송 출연까지 이어

지면서 걱정거리도 생겼다. 신아람은 “주위 환경이 많이 변했다”며 “하지만 내가 변하는 건 걱정된다. 변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다스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신아람과 함께 박태환(23·SK텔레콤)과 이용대(24·삼성전기)도 최고의 선수에 올랐다.

박태환은 “400m에서 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상이 위로가 된다”며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뜻인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태환은 이번 대회 남자 자유형 400m 예선에서 부정 출발이라는 이유로 실격당했다가 판정 반복 후 은메달을 땀다.

남자 배드민턴 복식에서 동메달을 목에



23일 오전 서울 KT 올레스퀘어에서 열린 ‘2012 런던올림픽 최고의 선수 어워드’ 시상식에서 박태환, 신아람, 이용대(왼쪽부터) 선수가 팬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건 이용대는 “뭉치런 상을 받게 돼 고맙다”며 “올림픽이라는 큰 대회에서는 안 좋은 기억이 더 많이 난다. 준결승에서의 패배를 앞으로도 잊지 않고 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1만5000명의 팬들이 온라인 투표에 참가해 박태환(2826표), 신아람(1903표), 이용대(1881표)를 최고의 선수로 뽑았다.
/연합뉴스

태극 공사들 다시 사대로

실업연맹회장기, 오진혁·임동현 등 불꽃 경쟁

기보배는 피로누적 불참

런던올림픽에서 세계 정상의 기량을 자랑한 태극 공사들이 국내사대로 다시 선다.
올림픽 대표들은 25일부터 29일까지 충북 보은 공설운동장과 속리산 광장에서 열리는 제23회 한국실업연맹회장기 대회에 출전한다.

한국의 사상 첫 남자 개인전 우승자 오진혁(현대제철), 세계기록을 수립한 임동현(청주시청), 여자 단체전 7연패를 활짝한 이성진(전북도청)과 최현주(창원시청)가 나온다.

여자부 2관왕에 빛나는 기보배(광주시청)은 피로 누적 때문에 출전하지 않기로 했다.
올림픽 대표들과 아쉽게 선발전에서 탈락

한 정상급 선수들, 예전에 세계대회에서 맹활약한 명공들의 불꽃 튀는 경쟁이 예상된다.

예선은 70m에서 72발을 쏘는 올림픽과는 달리 남녀부 4개 거리에서 36발씩 개인당 144발을 쏘는 싱글라운드 방식으로 치러진다.

개인전은 세트제로 치러지고 단체전도 올림픽과 같은 방식으로 열린다.

남녀가 짝을 이뤄 펼치는 혼성경기도 진행된다. 혼성경기는 올림픽에는 없지만 세계선수권대회나 월드컵에서 인기가 높다.

이 대회는 외국 클럽도 참가할 수 있지만 올림픽 직후 선수들이 휴식기에 들어간 까닭에 참가를 신청한 곳이 없다.
/연합뉴스